

주일 예배 11시

2017년 10월 15일 (둘째 주일)

\*표의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자리잡음

예배로의 부름

사회: 김동진 형제

\*찬송 만 입이 내게 있으면(23장) 다 함께

\*기도 주기도문 다 함께

\*교독문 57번 다 함께

\*찬송 주의 사랑 비칠 때에(293장) 다 함께

기도 하재혁 집사

찬송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288장) 다 함께

말씀 고명환 목사

-예수 그리스도: 5. 부활과 생명(요한복음 11장 25, 26절)

\*찬송 주의 말씀 받은 그 날(285장) 다 함께

교회소식 담당자

기도 담당자

교회소식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식사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 꼭 참여해 주세요.

- 금주 읽을 성경:시편 3-9편, 마태복음

- 기도해 주세요-
- 1. 팔루스 교회에 주님의 예비한 영혼들 보내 주소서
- 2.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시고 주님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 3.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지켜 주소서
- 4. 청소년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모임시간 주일 10시50분, 수요일 오후 7시, 월-금 오전 5시20분, 토요일 오전 6시

순례자의 목상

다윗의 진정한 다윗됨은 주님께 속하고, 그 주님을 앙망하고, 모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법을 좇고, 그분의 허락하심을 따르고, 그분이 주신 믿음 속에 살아가는, 진정한 삶이었습니다. 어느 의미에 있어서 다윗은 자기 일생에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 속함으로 인하여, 마치 성전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뵈옵듯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고, 경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시편에서 종종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성전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다윗은 벌써 경험한 것인 줄 압니다.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주님께 속하여 주님을 모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님을 가까이 하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자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처럼 귀중히 여겨 주시고 다윗은 이것을 정말 소중한 성전된 삶으로 알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때가 되었을 때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성전을 짓습니다마는, 그 솔로몬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참으로 주님을 모신 마음과 경배하는 마음으로 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실상을 놓아 버렸을 때, 솔로몬은 성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우상에게 이끌려 가고 사람에게 끌려가는, 그런 이상하고 비참한 자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주님께 속하여서 내 주님 주신 은혜 속에서 주님을 한없이 기뻐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서 보는,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마음 써 보는, 이런 진정한 이면적인 주님께 속한 성전된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칠년 동안 지은 성전이라도 솔로몬은 쉽게 벗어나 버리고야 맙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에 온통 관심을 두게 되고, 자기에게 관심 둔 그 삶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끌려가고 우상에게도 이끌려가며, 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자라기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내는 그런 자로 전락해 버리는 줄 압니다.

주님과 함께

조명숙

사랑하는 주님!!!  
봄바람 진달래 하양 노랑  
들꽃 피는 봄 길은  
주님이 함께 걸어주신 길이었습니다.

무덥고도 지리한 장마 빗길도  
주님이 함께 걸어주신 길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  
오곡백과 탐스럽게 영글어져가는  
가을 길도  
주님이 함께 걸어주신 길이었습니다.

냉혹한 눈보라 혹독한 겨울 길도  
주님이 함께 걸어주신 길이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라면  
이 세상 땅 끝  
저 수평선 넘어  
주님 뵈옵는 그날까지 주님과 영원히  
함께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을에

김희정

우리의 환경은  
늘 평화롭지만은 못합니다.  
예기치 못한 파도가  
밀려 올 때도 있고,  
일순간에 어두움과 고난이  
닥쳐오기도 하지만  
'너는 내종이다'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고  
약속하신 내 아버지, 주님 계시기에  
파도에 무너지거나  
어둠과 고난에 주저앉아 버리지 않고  
환경을 능가하는 힘이 생겨납니다.

어느새 노랗게 변해버린  
가을 들녘을 바라보면  
가을이 열매 가득한  
수확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결실을 정리해가는 시기임이 생각되어  
속연해지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열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자처럼  
드릴 열매 풍성히 맺어야 할 텐데 ...  
주님께서 계수해주실  
선한 열매 맺어가기 위해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꼭 매여  
빈껍데기가 아닌 알맹이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서 가야겠다고  
다시 다짐해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PALOUSE KOREAN CHURCH



2017년 10월 15일(42주) 31권-42

호

1205 SE Professional Mall Blvd Ste 115  
Pullman, WA 99163 Phone 978-807-4092

Website: pullmanpkc.org